인천대학교 만원릴레이 안내

만원릴레이는 대학발전기금으로 **1만원**을 기부하고 그 기부가 이어지는
기부 릴레이를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후원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대학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만원릴레이 130만 인천시민의 염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국립인천대학교가 이를 승화시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대학으로의 성장을 위해 만원릴레이 기부를 시작합니다!

기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경로를 통하여 연락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http://fund.inu.ac.kr** 이메일 **fund@inu.ac.kr**
전화 **032-835-8080, 9243** 팩스 **032-835-0839**

대표후원계좌
농협 1325-01-000611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인천대학교 소식지 2018 여름호 VOL.78

Leader

세상을 선도하다

세계 일류 대학을 향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이끌며,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그리다.

INU

시간에서 미래로, 공간에서 세계로 국립인천대학교

2018 Summer / vol.78

QR 코드를 통해 인천대학교 소식지를
이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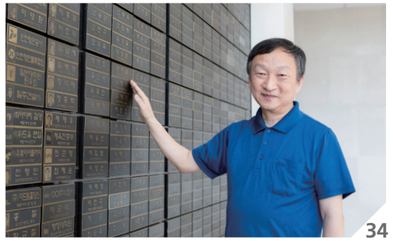
04

10

14

22

32


34

INU

INCHEON NATIONAL UNIVERSITY MAGAZINE

2018 SUMMER

VOL.78

ISSUE & INU

04 Portfolio by INU 세상을 선도하다
- 황해 아카데미, 우리나라와 인천을 알리다
- 더 큰 발전을 위한, 끝없는 교류
- 교류가 낳은, 새로운 내일
- 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위해
- 해외 현장 활동, 세계에 희망과 행복을 나누다

10 Hot Issue 여기, 그리고 지금
- '2018 인천뮤직, 힉엣농크' 그리고 '가족의 날' 행사개최

14 Global 시간에서 미래로, 공간에서 세계로
- 인천대, 세계가 주목하다
- 다름이 모여, 하나가 되다

ACTIVE & INU

20 Focus.1 독성 낮은 공융액체금속 규명으로 조직공학계에 청신호를 켜다

22 Focus.2 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초대합니다!

24 Spotlight UN이란 무대 위, 두 명의 주인공

26 Tip & Talk 내일을 그리는 오늘의 이야기

28 Club 나를 태워 세상을 사랑하다

30 Sketch 청춘, 열정으로 무르익다

WITH I&U

32 INU People 시민들과 울고 웃는 삶이 행복합니다!

34 마음 전하기 사랑을 나눠 보람을 저축하다

36 INU News

40 발전기금 소식

41 발전기금 현황

인천대학교 소식지
2018년 여름호 통권 제78호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인** 조동성 **발행처** 인천대학교 홍보팀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 www. inu.ac.kr **기획·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 032-423-1988
송도캠퍼스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제물포캠퍼스** 22100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대길 319
미추홀캠퍼스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INU〉 구독안내
인천대학교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 또는 전화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Tel 032-835-9493(인천대학교 홍보팀)
E-mail kjk97@inu.ac.kr

Global Leader

세 상 을 선 도 하 다

인 천 대 학 교 지 역 경 제 발 전 과 글 로 벌 역 량 강 화 를 위 해

인천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세계를 올바른 길로 이끌며 함께 성장하는 것. 현재 우리대학이 세계 일류 대학을 목표로 걷고 있는 길이다. 오늘보다 빛날 내일을 그리며 세상을 선도하는 우리대학의 길을 이곳에 담아본다.

edit — 최진성 photo — 이주용, 인천대 홍보팀 제공

황해 아카데미, 우리나라와 인천을 알리다

우리대학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제5차 황해아카데미(YELLOW SEA ACADEMY)가 개최됐다.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에서는 중국 내 한국어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중 교수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와 인천을 더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황해 아카데미는 연변대학을 비롯한 산둥성과 흑룡강성 주요 대학 가운데 한국어학과 개설학부 교수 19명을 초청해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 동안 진행됐으며, 조동성 총장의 특강과 더불어 한국어 어휘, 한국전통문화, 전문가 특강, 송도 내 입주기업 탐방 등이 진행됐다. 허윤성 하택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는 "중국 내에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과의 교류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앞으로 중국 내 다른 지역의 한국어 학과 교수님들을 초청해 이런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 큰 발전을 위한, 끝없는 교류

또한, 우리대학 도시과학대학은 중국 연변대학 공학원과 연변대학 내 공학원 회의실에서 상호 국제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 했다. 이날 협약식에선 도시과학대학의 스마트시티 국제교류 기여사업에 관련된 상호 논문발표 및 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양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과 교육에 관한 상호교류, 교직원과 학생 및 교환교수, 연구교수, 교환학생 등의 상호파견, 다양한 형태의 학생교류 및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교류 진행, 양측이 규정한 학점 이수 및 양측 대학의 학위 각각 인정 등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향후 도시과학대학은 박사과정이 없는 우수한 연변대 석사과정 졸업생을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추천하고, 연변대 학생의 박사 지도교수로 우리대학과 연변대 각각 1인씩을 선임해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식 및 우수한 학부생에게 장학금제도를 통해 연변대 학생을 유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실질적인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류가 낳은, 새로운 내일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얼마 전, 웨이하이남해신구 관리위원회와 합작연구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기 때문. 이를 계기로 합작연구원은 1단계 사업을 통해 오는 9월 12개 연구동 완공을 앞두고 있는 웨이하이 과학혁신타운에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과 웨이하이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인 만큼, 우리대학과 웨이하이남해신구가 합작연구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함으로써 교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웨이하이남해신구의 행정, 재정 지원 아래 우리대학의 연구 인력이 투입될 합작연구원은 두 지역 통상, 생활 환경 개선과 문화, 교육 교류 강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합작연구원 설립을 계기로 중국 내에 교육 및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웨이하이남해신구에 합작교육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동성 총장은 웨이하이 남해신구 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웨이하이 과학혁신타운에 입주할 우리대학 합작연구원의 운영 청사진을 최종 합의했다. 그 결과, 합작연구원은 중국 웨이하이 소재 한국 기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한국기업의 웨이하이 투자를 위한 지원 플랫폼 기능 수행, 양국 기업교류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연구·교육 기관인 대학과 중국 지방정부, 그리고 현지 대학 간의 삼위일체를 통해 중국의 국가발전 및 산업정책을 연구해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위해

우리대학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리고 그 중심엔 창업지원단이 있다. 창업지원단은 지난 8년간 창업선도대학을 운영하며, 국내 최고수준의 창업지원 역량과 조직을 확보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전국 창업선도대학 중 최상위권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자타공인 인천경기지역의 대표 스타트업 메카로 위상을 갖췄다.

현재, 218건 이상의 성공적인 창업. 성공 비결엔 남다른 특별함이 존재한다. 먼저, 창업지원단은 창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기능을 정교한 단일 시스템에서 운영하며 초기 아이디어 단계부터 서비스 활성화까지, 전체 과정에서의 전 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창업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이라는 창업지원단의 이념이다. 때문에 수준 높은 석박사급 연구진과 교수진이 창업 활동에 참여하고, 218개의 창업지원단 가족기업, 100여 명의 전문가 멘토단이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또한, 5명의 Incubation Specialist, 5명의 Education Specialist가 상주하며 불철주야 창업가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시키고 있다.

이렇게 특별함을 갖춘 창업지원단은 얼마 전, '인천 관광 어드벤처'라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건넸다. 인천 관광 어드벤처는 인천지역 관광분야 창업 활성화 및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창업의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전문가들에게 창업 및 경영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각종 평가와 심사로 최종 선정된 5팀은 7,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앞으로도 창업지원단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동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더 많은 이들의 간절한 꿈이 '성공'이란 결실을 맺는 그날을 위해.

해외 현장 활동, 세계에 희망과 행복을 나누다

우리대학은 KOICA ODA교육원의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7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와 다르한으로 해외 현장 활동을 다녀왔다.
개발도상국가의 거버넌스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다르한에서의 건축봉사활동은 몽골 현지의 관심이 매우 컸다. 봉사활동 4일차에는 현장에 시 의장이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해당 봉사단의 활동이 몽골 현지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활동 막바지에 학생들은 해당 건축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조성해 전달했고, 행정학과 김동원 교수의 주도 하에 우리대학과 몽골 NGO, 다르한 시 의회는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봉사단 파견을 약속했다. 이렇듯, 다른 나라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며, 더불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해외 현장 활동. 때문에 참여 학생들은 언어와 실무능력을 향상은 물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본 지식을 보다 넓히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TIP BOX

KOICA ODA 교육원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실무지식을 제공하고 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거버넌스 국가 해당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MINI INTERVIEW

해외 현장 활동을 다녀오며

방소정 학생
(행정학과 3학년)

#1

이제는 '몽골'하면 그저 막연하게 떠오르는 이미지에서, 그 속에서 만난 '사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함께 길을 만들어 가며, 마음을 나눴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에는 우리의 봉사활동에 주민들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 주었고, 함께 길을 만들었죠. 비록, 나라와 문화, 언어는 달랐지만 이번 해외 활동을 계기로 그들의 삶을 배울 수 있었고, '저의 작은 손길이 그들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개발도상국에 찾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모상우 학생
(행정학과 4학년)

#2

몽골이라는 생소한 국가에 가볼 기회라 생각해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한 몽골 해외 봉사활동은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운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어색해 했어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다르며, 그나마 가능한 외국어인 영어로도 대화가 거의 불가능했죠. 하지만 무거운 것을 같이 옮기고 작업의 결과물을 만들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과정으로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단순히 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배워가는 기간은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은 학생
(행정학과 2학년)

#3

1학기 ODA 수업을 통해 몽골로 해외 봉사활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생애 처음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가게 됐습니다. 해외 봉사활동은 처음이기도 했고, 봉사활동 하러 가는 곳이 몽골이라 더 설레고 기대가 됐죠. 직접 찾아가 경험해보니, 우리가 도운 일들이 그들에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해외 봉사활동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른 학생들도 해외 현장 활동 참여를 통해 뜻 깊은 보람과 경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2018 인천뮤직, 힉엣눙크' 그리고 '가족의 날' 행사 개최

작년에 이어, 제2회 인천뮤직 페스티벌이 우리대학에서 무대의 막을 올렸다. 작년 공연은 많은 찬사와 함께 인천 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경이로운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 감동과 떨림은 따스함이 더해져, 우리에게 다시금 추억을 선사했다.

edit — 최진성 photo — 이덕재

여름밤의 축제, 인천대의 밤을 밝히다

음악으로 하나 되는 축제, '2018 인천뮤직, 힉엣눙크'가 올해 우리대학 구성원과 가족, 시민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대학교 가족의 날'행사로 개최됐다. 우리대학의 공식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대학 발전을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하며 묵묵히 힘써준 대학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대학의 따스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여름밤의 음악 축제였던 만큼, 인천대 구성원과 시민들은 큰 감동과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공연에는 아이슬란드 대사와 인천시민들도 참석하여 그 자리는 더욱 빛났다.

TIP BOX

힉엣눙크란? : 힉엣눙크 (Here and Now의 라틴어로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는 세계 음악계의 새로운 시도와 흐름을 국내에 알리고 함께 경험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한 음악제다. 2017년 인천을 중심으로 시작해 첫 음악제를 성공리에 마친데 이어, 올해는 OBS를 공동주최로, 인천대학교가 공식후원으로 참여해 더욱 수준 높은 음악제가 됐다.

따스함과 특별함을 담다

1부와 2부로 구성된 이번 축제는 1부는 공연, 2부는 케이터링 서비스가 서비스로 진행됐다. 먼저, 공연은 세계적인 연주가들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공연은 '상임 음악가'는 외르크 비트만이 맡았다. 그는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클라리넷 연주자로, 작년 카네기홀은 비트만을 초청하여 시리즈의 음악회를 기획해 그의 음악세계를 조명했다. 그리고 세계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아이슬란드의 젊은 피아니스트 '비킹구르 올라프손'과 '세종솔로이스츠'가 참여도 이뤄졌다. 세종솔로이스츠는 미국 CNN이 극찬한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로서 지금까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500회가 넘는 연주회를 진행한 베테랑이다. 이러한 초호화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덕분에, 우리대학의 밤은 더욱 아름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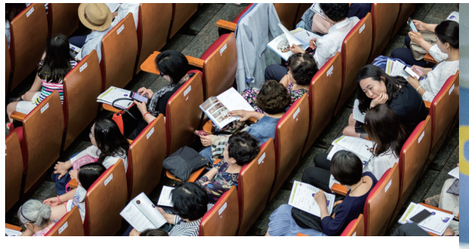
TIP BOX

케이이터링 서비스(catering service) : 출장연회 서비스

첫 곡으로는 멘델스존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라단조'가 연주됐다. 피아니스트 비킹구르 올라프손과 바이올리니스트 윌리암 웨이는 스마트한 연주,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앙상블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멘델스존의 선율이 살아 숨을 쉬며 천상의 빛을 노래했다.

두 번째 곡은 외르크 비트만의 '분당 180비트'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다.
세종솔로이스츠의 균형 잡힌 앙상블과 감각적인 연주를 들을 수 있었던 공연이었다.
선율에 따라 흐르는 연주자 표정은 관객 모두를 연주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2부에서는 와인과 함께 곁들인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케이터링 서비스가 진행됐다.
우리대학의 따스한 마음과 정성이 담겨서 일까.
참석한 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마지막 곡으로는 클라리넷 연주자
독일의 '외르크 비트만'이
베버의 '클라리넷 5중주 내림나장조'를
연주하며 아름다운 멜로디로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의 소명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구성원들과
함께 협업하여 그 꿈을
이뤄낼 것이다."

2부에서는 와인과 함께 곁들인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케이터링 서비스가 진행됐다.
우리대학의 따스한 마음과 정성이 담겨서 일까.
참석한 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의 소명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구성원들과
함께 협업하여 그 꿈을
이뤄낼 것이다."

시간에서 미래로,
공간에서 세계로

켜켜이 쌓아온 우리의 시간이
모두의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으로,
인천이라는 공간을 넘어
세계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끝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대학,
우리는 국립 인천대학교입니다.

인천대,
세계가 주목하다

1 100미터 인절미 행사를 준비하는 학생홍보대사(드림이).
2 외국대사와 외교관들이 우리대학 방문소감을 작성하고 있다.
3 조동성 총장이 주한 외국대사 및 외교관들에게 우리대학의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4 국제학생회 학생들이 우리대학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5 모두가 행사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16개국 주한 외국대사 및 외교관 초청행사 개최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우리대학은 끝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교류한다. 그리고 얼마 전, 주한 외국대사 및 외교관 초청행사를 통해 우리대학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우리대학의 비전을 공유하다

우리대학이 우수학생 유치와 대학홍보를 위한 16개국 주한 외국대사 및 외교관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송도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미얀마, 라트비아, 루마니아, 과테말라, 볼리비아 등 5개국 주한대사와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가나,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페루, 투르크메니스탄, 파라과이 등 10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조동성 총장은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대학의 비전과 우수 캠퍼스, 매트릭스 칼리지 등을 직접 소개하며, 우리대학의 발전 가능성을 전 세계에 선보였다.

이어 채드 앤더슨 국제교류원장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강의, 장학금, 기숙사 등 입시설명을 진행했다. 소개 이후, 주한 외국대사 추천 외국인 학생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볼리비아 대사관, 파라과이 대사관, 과테말라 대사관과 체결했다. 체결이 끝나고, 외국대사 및 외교관들은 국제학생회(ISSC,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ing Community) 소속 재학생들의 영어 소개로 전망타워, 도서관 등을 둘러봤다.

한편, 이번 초청행사에서는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100미터 인절미 만들기'라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인절미 이벤트는 외교관들에게 한국문화체험의 기회를 주고 재학생들에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건전한 축제문화를 인식시키고자 마련됐다. 대학을 방문한 뚜라 뗏 오 마응 주한 미얀마 대사는 "최첨단 캠퍼스와 대학 비전이 인상적이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대학은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향한 인천대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세계의 우수 인재들이 인천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다름이 모여, 하나가 되다

인천대, 글로벌 교육협력 프로그램 'AUS' 행사 개최

우리대학에 아시아 최고 수준의 대학 학생들이 방문했다. 바로 'AUS' 행사가 우리대학에서 개최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AUS 행사를 통해 지역 내 현안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세상의 밝은 내일을 그렸다. 다른 문화와 생각이 만나 우리가 가야할 올바른 길을 제시했던 그날을 들여다보자.

다른 문화와 생각, 올바른 길을 개척하다

우리대학이 세계 수준의 명문 대학 도약을 위한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국립대와 함께 Asian Undergraduate Summit 2018(이하 AUS) 행사를 개최했다. AUS는 사회의 책임감을 지닌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모여 사회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의 아시아권 학생들이 지식과 문화를 교류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7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진행된 AUS 2018에는 행사에는 인천대, 서울대,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중문대에서 선발된 대학생 총 25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우리대학에서 일주일 간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로 이동해 일주일 동안 다른 주제로 일정을 보냈다. 이번 행사의 공식 주제는 '분산된 책임에 대한 복잡한 세계에서의 리더십'으로 싱가포르에서는 '포괄적 공간 만들기', 우리대학에서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세부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조를 이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인 팀세션으로 이뤄졌고, 참여 학생들은 다른 문화권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들을 나눴다. 또한, 주제와 연관된 전문 강사들의 강연으로 통해 학생들은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토론을 펼칠 수 있었다.

edit — 최진성 photo — 이덕재

AUS 행사 참여 학생 Mini Interview

한국에서 만난 세계

Ong Chuan Kai (24세)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심리학과 4학년

평소에도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 교류에 관심이 많아 AUS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인천대 AUS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김밥도 만들고 투호도 해보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해 새로웠어요. '옹전개'라는 저의 한국어 이름도 친구들이 지어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상호 교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이뤄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싱가포르 공군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깊게 사려하는 올바른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협력하고 소통하며 만든 해답

Chiu Chun Yin (26세)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정보공학과 3학년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알아간다면 제 생각의 지평도 넓어질 거라 생각해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팀 세션을 통해 문제 해결 기법을 배운 것도 의미 있었지만, 서로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하나의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 마음가짐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이루는 데 있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안목을 가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열정에 불을 지핀 AUS

서은아 (23세)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4학년

이번 AUS 프로그램의 주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진 친구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친구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제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공부하게 되어 뜻 깊었습니다. 특히 게스트 스피커의 강연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강연이라 공부도 많이 됐지만, 실무진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론과 현실에 대한 접목도 엿볼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비슷했기에 동질감과 함께 자신감도 붙었죠. 때문에 AUS프로그램은 환경과 관련된 방향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다시금 열정을 일깨운 자리였습니다.

보다 많은 경험, 보다 넓은 세상

이승훈 (26세)
인천대
무역학과 4학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제 꿈을 찾아가고 싶다는 소망은 저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기후변화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여기에 더해 영어로 토의를 진행하는 행사이니만큼, 평소에 영어회화를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던 차에 좋은 기회다 싶어 AUS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통적으로 수긍할 만한 해결책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 참 뜻 깊었습니다. 행사 관계자분들을 비롯해 인천대 관계자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낯선 환경에서도 어렵지 않게 금방 적응한 것 같아 고마운 마음입니다.

Focus1

독성 낮은 **공융액체금속 규명**으로 조직공학계에

액체금속류는 전기전자 및 생명공학 분야 연구진들에게 있어 꽤나 매력적인 소재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수은, 카드뮴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에 우리 학교 생명공학부의 김교범 교수는 다소 독성이 낮은 액체금속 갈륨·인듐 기반으로 한 조직공학 플랫폼의 기술들을 연구, 생체재료/생체공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에 이에 관한 내용들을 발표하여 주목 받고 있다.

Q. 미국 화학회가 발간하는 세계적인 학술저널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를 통해 최근 발표하신 '갈륨·인듐 기반 조직공학 플랫폼에 관한 기술'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A. 액체금속류는 전자전기제품 소재로는 물론, 생명공학계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렇지만 흔히 사용되는 수은이나 카드뮴과 같은 액체금속들은 인체 유해성이 높아 항상 논란거리이죠. 이에 저희 연구팀은 수은이나 카드뮴에 대체가능하되 인체적용 시에 부작용이 적은 액체금속류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액체금속 갈륨·인듐 등을 기반으로 한 新공융액체금속의 독성 및 활용 범주까지 규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체부위별로 다른 특정 세포들에 해당 액체금속류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가지는지, 면밀하게 밝힌 것입니다.

Focus1

독성 낮은 **공융액체금속 규명**으로 조직공학계에 청신호를 켜다

생명공학부 김교범 교수

액체금속류는 전기전자 및 생명공학 분야 연구진들에게 있어 꽤나 매력적인 소재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수은, 카드뮴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에 우리 학교 생명공학부의 김교범 교수는 다소 독성이 낮은 액체금속 갈륨·인듐 기반으로 한 조직공학 플랫폼의 기술들을 연구, 생체재료/생체공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에 이에 관한 내용들을 발표하여 주목 받고 있다.

Q. 미국 화학회가 발간하는 세계적인 학술저널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를 통해 최근 발표하신 '갈륨·인듐 기반 조직공학 플랫폼에 관한 기술'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A. 액체금속류는 전자전기제품 소재로는 물론, 생명공학계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렇지만 흔히 사용되는 수은이나 카드뮴과 같은 액체금속들은 인체 유해성이 높아 항상 논란거리이죠. 이에 저희 연구팀은 수은이나 카드뮴에 대체가능하되 인체적용 시에 부작용이 적은 액체금속류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액체금속 갈륨·인듐 등을 기반으로 한 新공융액체금속의 독성 및 활용 범주까지 규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체부위별로 다른 특정 세포들에 해당 액체금속류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가지는지, 면밀하게 밝힌 것입니다.

Q. 그렇다면 갈륨·인듐 공융액체금속 독성은 수은, 카드뮴에 비해 어느 정도 낮은가요?

A. 실험 결과 카드뮴은 IP15(신장 관련 세포)를 50% 죽게 하는 데에 농도 2μmol이 필요하였으나 갈륨·인듐 공융액체금속 경우 인간지방줄기세포 및 섬유아세포를 50% 죽게 하는 데에 각각 120μmol, 240μmol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륨·인듐 액체금속들은 카드뮴에 비해 60배에서 120배가량 낮은 세포독성 및 높은 안전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Q. 연구팀의 성과물이 학계 혹은 관련 분야에서 갖는 의의는요?

A. 액체금속류에 관한 연구들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갈륨·인듐 기반 신규 액체금속류를 우리 몸에 적용했을 시에 어떤 부작용과 안전성을 가지는지 유/무해를 검증하는 기초연구부터 활용방법까지 다룬 것은 처음이죠. 그러므로 학계에선 물론이고 관련 분야라면 전부 희소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연구진의 데이터를 통해 보다 나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연구 속도 또한 높일 수가 있을 테니까요.

Q.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A. 암색전술에 액체금속류를 적용하는 연구실험 중입니다. 암색전술이란 암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을 막아 암세포로 공급되는 산소 및 영양분을 차단, 암세포를 줄게 하는 시술인데 이때 갈륨·인듐 액체금속류를 사용하면 어떤 긍정성과 부정성을 가지는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액체금속들을 입자화해 암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에 주입, 빛에너지류로 조사(照射)·파괴하는 방식이죠. 입자화한 액체금속 안에 항암제를 도입하여 암세포로 공급되는 산소 및 영양분을 막을 수는 없는지와 항암제의 전달 가능성도 확인 중입니다.

Q. 이밖에도 흉터 없는 피부재생 패치라는 것을 개발하셨는데, 기존 방법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보통 피부 흉터 없애고자 하면 외과적인 수술이나,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연고 혹은 패치 등을 이용하곤 합니다만,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 여러모로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고 약물류는 화학성분이라 장기사용하면 좋지 않죠. 효과 역시 미미하고.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 연구팀은 수술이나 화학제재 도움이 없이도 손상된 조직의 세포가 스스로 재생이 되도록 고분자껍질에 싸인 성장인자들을 멤브레인 패치 위에 코팅했습니다. 이때 성장인자들을 고분자껍질로 싸는 것은 체내 안정성을 높여 세포재생 활성화를 오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이를 상처 및 수술부위에다 부착하면 성장인자들이 피부조직 내로 전달되어 손상세포 재생력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수술 봉합 주변에다 고분자껍질에 싸인 성장인자들을 미량 주사하면 상처회복뿐만 아니라 흉터 억제까지 기대할 수 있음을 검증했습니다.

Q. 교수님의 연구철학 및 앞으로의 계획들이 궁금합니다.

A. 거창한 가설을 세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보다 우리 삶에 직접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연구에 매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소소하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연구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교육자인 만큼 우리 학생들이 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겁니다.

edit — 이소영 photo — 이덕재

Focus2

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오늘도 청소년들은 우리대학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SCIENCE

최근 우리대학 과학영재교육원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2018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 운영사업' 인천지역 운영기관으로 최종 낙점됐기 때문이다. 인천 내 과학 교육의 메카로 명실상부 인정받은 셈. 20년째 과학영재교육원을 꾸려오고 있는 물리학과 박인호 교수를 만나서 그 비결을 들어봤다.

새로운 시도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

우리대학 과학영재교육원은 지난 1998년도에 출범, 인천지역 내에 과학영재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성장시켜왔다. 입학생만 해도 연간 340여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7,600여명의 학생들이 이곳 교육원을 거쳐 갔단 말이 된다. 참고로 우리대학 과학영재교육원은 수학·과학 관련 교과 중에 1개 과목 이상 재능 있고 해당 분야 영재교육 및 융합영재교육 등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리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정한 영재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단계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검사와 2단계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그렇다고 테스트를 통과하는 특정 학생들만 과학영재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사이언스 러닝 파크(Science Learning Park)'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과학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사업인데, 수학과 과학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주제는 학생(개인 또는 그룹) 스스로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제안된 주제는 분야별 멘토(박사급 전문가)와 논의 후에 실제 실현 가능한지 확인하고 구체화시킨다. 실험 및 제작 환경 세팅, 도구 사용 등에 대한 교육 또한 여기에서 이뤄진다. 실험·제작 과정들은 전문가의 관리감독 아래 병행되며 모든 커리큘럼이 종료되면 학생들은 결과물에 대한 평가부터 수정 사항, 향후 진행 방향까지 유익하고 깊이 있는 조언들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사이언스 러닝 파크 교육은 학생들의 관심사로 출발해서 학생들의 관심사로 끝맺음을 하는 '학생 중심 연구메이커'다.

'메이커스페이스' 주관기관으로 선정

최근 인천지역 메이커스페이스의 주관사업자로 선정이 된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메이커스페이스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창작·개발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인데, 과학영재뿐만 아니라 모든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하는 까닭이다. 과학 생활화를 꾀한다는 점에 있어 사이언스 러닝 파크 시스템과 메이커스페이스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판단됐기 때문이리라는 것이 교육원의 설명이다. 입지적인 면도 한몫했다.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예정지인 우리대학 미추홀캠퍼스는 인천1호선 테크노파크역과 인접하여 있는데다, 유동·유입인구 역시 매우 높기 때문이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과학교실이라든지, 영재교육교사연수 등도 우리대학 과학영재교육원의 차별화점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교육원은 설립 해인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최우수영재교육기관으로 뽑히는 쾌거를 안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대학 과학영재교육원은 향후 5년 동안 예산 12억 원을 지원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가을까지 송도 미추홀캠퍼스 내에 268㎡ 규모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게 된다. 기존에도 각종 제작 장비 및 연구/실험 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었지만, 더욱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3D프린터실과 금속·목공 가공 공간, 절삭장비운영실, SW운영실 등을 구축해갈 예정이라는데.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기본 장비 및 도구들을 활용하는 기초교육 프로그램부터 아이디어 구현과정에서 전문가를 매치시켜주는 코칭프로그램, 가죽&종이공예·목공 등을 배울 수가 있는 Gift Day 프로그램, 디지털영상콘텐츠를 다루는 스토리메이커 프로그램, 폐가전 부품을 활용한 창작품 프로그램, 과학교구 제작 프로그램, 공통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이 모여 운영하는 동호회와 우리 동네 과학클럽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렇듯이 생활 밀착형의 과학문화 조성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우리대학 과학영재교육원. 그곳에 가면 누구나 과학과 친구가 될 것이다.

edit — 이소영 photo — 이덕재

Mini Interview

과학영재교육원장
박인호

과학은 특정한 부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죠. 이에 우리 과학영재교육원 메이커스페이스는 인천시민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에 최선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대학 창업지원단을 비롯하여 외부 유관 기관과도 연계 가능하니 부담 없이 방문하길 바랍니다. 창의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과학교육 시스템을 이룩하기 위해 저희 과학영재교육원은 앞으로도 획기적인 시도들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UN이란 무대 위, 두 명의 주인공

'모의유엔대회' 대상 수상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최종석, 3학년 권순욱 학생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4년간의 대학생활,
이 기간을 활용하기에 따라 대학생들은 꿈꾸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하고자 하는 바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다. 학생들에게 대학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기에.
여기 동문의 귀감이 될 만한 재학생이 있다.
누구보다 알차게 대학생활을 즐기는 중어중국학과 12학번 김한솔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막연했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는, 본인의 자리에서 우리대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었다.

정치외교학과 4학년 최종석(왼쪽)
정치외교학과 3학년 권순욱(오른쪽)

edit — 주문수 photo — 이덕재

Q. 제24회 전국대학생모의유엔대회에는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나요?

매년 저희 정치외교학과 차원에서 참가를 장려하는 대회였습니다. 영어에 관심이 많던 저는 영어로 발표하는 이번 대회에 도전해보고 싶었고, 정치외교학과 수업으로 얻은 대회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용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가를 결정하고부터는 대회에서 수상보단, 대회를 통해 국제 관계에 대한 공부를 더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했습니다.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입장이 되어 국제 정세에 따라 토론을 하는 대회인 만큼, 다른 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희는 영국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참가했고, 덕분에 영국의 많은 이슈를 대하며 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국제노력'을 주제로 토론하셨는데,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현대안보론 수업을 통해 테러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며 관련 지식들을 습득했죠. 때문에 테러관련 주제는 어느 정도 깊이를 갖췄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인적으로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소 깊이 있게 공부했던 분야도 중동 지역 정치나 사회·문화에 대한 부분이었죠. 테러 관련 이슈가 많은 중동을 다뤄왔기에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국제노력'이라는 주제가 친숙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많았거든요.

Q. 쟁쟁한 경쟁자가 많았던 대회였는데, 대상을 수상하게 된 두 학생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토론에 있어 핵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수상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팀들이 논점과 어긋난 주장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사실관계와 이론에 입각해 주제에 접근했거든요. 내용 또한 다른 어떤 팀보다 탄탄하게 준비해 막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학과 차원에서 참가를 장려했던 만큼, 대회에 참가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했던 것 또한 컸어요. 대회 참가비는 물론, 교통비와 체재비까지 모두 지원받아, 대회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지도 교수님과 이전 대회에 참가했던 선배들의 조언도 대회준비에 있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Q. 대상 수상과 함께 유엔회의 참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으셨는데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결과 발표 전 까지는 저희가 대상을 수상할 거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 측 발표 내용은 좋았지만, 토론을 진행하는 데 미숙함도 있었고, 준비했던 의제 중 몇 가지는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대상을 수상하고 실제 유엔회의에 4박 5일 일정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니 뛸 듯이 기뻤죠. 유엔회의 같은 경우 관계자가 아니라면 쉽게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일이잖아요.

저 또한 대회가 진행되는 3박 4일 동안 저희 팀의 부족한 부분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좋은 경험을 쌓았다는 정도로 생각하려 하기도 했죠. 그런데 저희 팀이 대상에 선정됐다는 발표를 듣고 대회장에서 기뻐 날뛰었습니다. 대회 관계자분들도 이렇게 기뻐하는 참가자는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죠. 유엔회의 참관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 그간의 노력 이상을 보상받은 것 같았어요.

Q. 유엔회의 참관 프로그램 이후 두 학생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국제기구 소속 영어 통역사 같은, 영어와 관련된 쪽으로 꿈을 키우려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유엔회의와 같은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다소 생소한 표현도 있었지만 그만큼 재미있었어요. 실제 유엔회의에 참관해서도 각국 대표들의 표현과 단어 선택에 대해 눈여겨볼 생각이고, 통역에 대한 능력을 키워 제 꿈을 향해 갈고닦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유엔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가면서 정치외교에 대한 깊이를 더해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후배들을 위해 종석 학생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대상 수상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후배들이 가이드 없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더듬어 힘겹게 걷지 않도록, 친절하게 방향과 방법을 알려줄 생각입니다.

내일을 그리는 오늘의 이야기

경영학부, 현대자동차 대학생 경진대회 최우수, 장려상 수상

우리대학 경영학부 학생 8명으로 이루어진 경영학부 2팀이 현대자동차 대학생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차지했다. 과연, 값진 수상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경영학부 김창희 지도교수가 전하는 그날의 수상 이야기를 들어보자.

edit — 경영학부 지도교수 김창희

그날의 영광, 토의에서 시작되다

대회를 위해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한 토의를 진행했다. INU생산서비스연구회 팀의 김도영, 김영준, 고승욱, 김영찬, 이요한 학생과, 미래경영 팀의 김미경, 강민주, 이영 학생 등 여덟 명의 학생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학생들의 열정에 보답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준비했다. 그 결과, 우리는 대학생 이상의 수준 높은 회의가 이뤄졌다. 여덟 명의 학생들은 내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보내 왔으며, 나는 그에 대한 해답이나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열띤 토의가 꾸준히 진행된 결과, 우리는 현대자동차 경진대회에서 INU생산서비스연구회 팀은 최우수상, 미래경영 팀은 장려상이라는 과분한 결과를 얻게 됐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제시

INU생산서비스연구회의 주제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우체국 HUB 네트워크 구축' 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가 2013년에 약 152조 원, 2014년 162조 원, 2015년 168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글로벌물류강국이 되기 위해 지속적 경제성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각종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물류비 증가의 주요인인 인건비의 효과적인 절감을 위해 자율주행차를 적용한 새로운 물류네트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한 연구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선행된 물류 기업의 입지 요인의 문헌 연구를 통해, 물류 입지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이후 자율주행차를 적용한 새로운 물류 거점 선정에 있어 AHP 기법을 사용하여,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AHP 분석❶ 결과, 교통접근성, 용지조건, 배후지역의 3개의 평가 요인과 9개의 세부 요인을 도출했다. 그리고 도출한 세부 요인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교통접근성, 배후지역 그리고 용지조건 순으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권역별 우체국 및 인접 유력 물류 거점 도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물류 거점의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권역별 가장 높은 순위의 도시는 수도권은 수원, 경상권은 부산, 전라권은 광주, 충청권은 청주, 강원권은 춘천의 결과가 탄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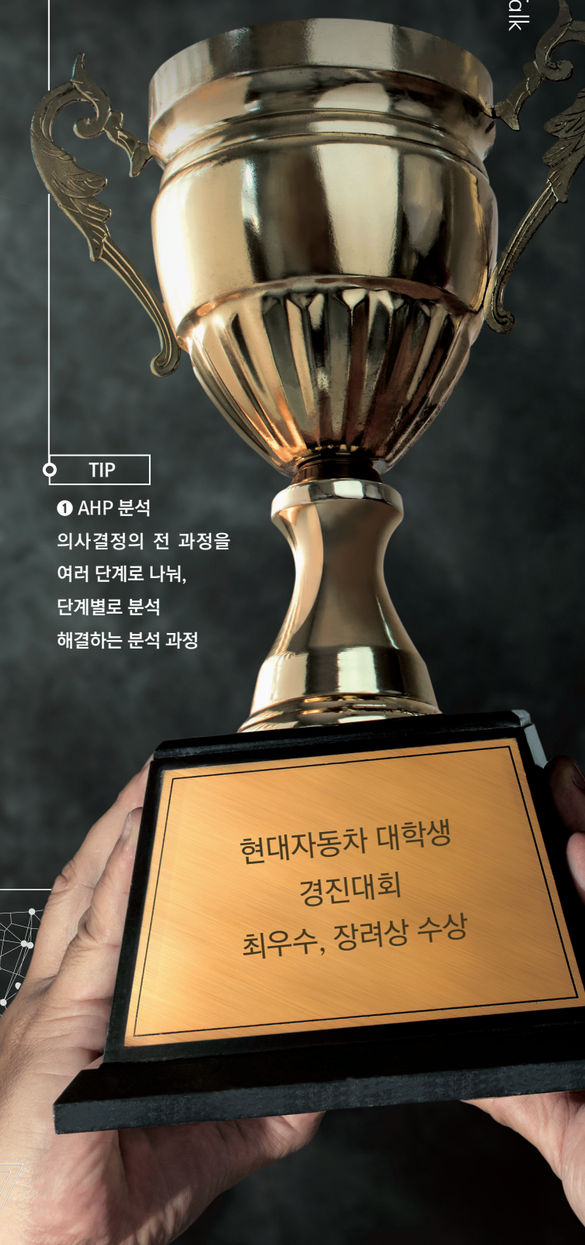
미래의 물류센터 중심지는 어디인가

다음으로 미래경영 팀의 주제는 '향후 남·북한 통일에 따른 택배 HUB의 변화'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 중 하나인 교통 및 물류 인프라의 확충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물류 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해 비용과 시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당위성 하에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유가 상승, 인건비, 소비자들의 욕구 다양성 등의 이유로 물류비가 상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물류의 효율화 없이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으며, 현재 유라시아 철도와 같은 국제적인 교통, 물류 인프라에 대한 논의와 비교해 국내의 물류 인프라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의 빈도가 낮았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남북통일 시 북한의 물류센터 중심지는 어디가 될지,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로 보았을 때 효율적인 물류센터 중심지는 어디로 변화될지를 예측해 보았으며, 입지선정 기준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 따라 입지선정의 주요 단계는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물품 수송량을 파악하며 수송 소요거리를 산정하는 순으로 구성했다. 입지 대상 후보지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는 공장 및 수요지 근접성, 도로의 인접 여부나 교통의 편리성, 지반이나 토지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지가 및 건축비 등도 고려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우리는 현재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매 학기 개최되는 현대자동차 대학생 경진대회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생 논문 발표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여는 그날을 위해.

TIP

❶ AHP 분석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분석 해결하는 분석 과정



나를 태워
세상을 사랑하다

인천대학교 자원봉사 동아리
'초아다솜'

초아다솜은 보다 따뜻한 세상을 위해 제 한 몸 촛불 삼아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자원봉사 동아리다. 이들은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봉사와 캠페인을 기획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에 기여하고 있다. 굿네이버스와 연계해 아동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는 초아다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회복지학과 4학년
김유주

온기를 더하는 동아리를 꿈꾸다

초아다솜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초아와 사랑을 뜻하는 순우리말 다솜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다. 즉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고, 사랑하자는 의미로 탄생했다. 자신을 태운다는 의미에서 자칫 희생이 필요한 듯 보일지도 모르지만, 초아다솜에게 있어 봉사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봉사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친숙한 개념이다. 주변의 소외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한 번 더 보내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더하는 일 모두가 봉사다.

초아다솜은 이처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 스스로 봉사를 즐기는 단체가 되길 꿈꾼다. 봉사활동이 쉽고 재미있는 일로 인식돼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초아다솜은 조직을 유연하고 친밀하게 유지하면서, 직접적인 봉사활동 이외에도 대중의 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초아다솜

굿네이버스는 1991년에 한국에서 설립된 NGO 단체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기구다.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단체는 초아다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덕분에 초아다솜은 올해 인천 권역 캠페인에 참여해 방탈출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대 축제 당시에는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해 아동과 학부모, 대학생의 호응을 얻어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를 찾아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매번 색다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아동학대 예방을 선전하고 대중의 관심을 유도한다.

굿네이버스와 연계해 주로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초아다솜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으로도 꾸준히 인지도를 쌓아왔다. 덕분에 이제는 지역 복지관 등 관련 단체에서 먼저 초아다솜에게 봉사활동 요청을 해 오기도 한다. 이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인천대를 넘어 지역 곳곳에 봉사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봉사에 목마르다

그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동안 시행한 적 없었던 유기견 센터 봉사나 연탄 나누기 봉사 등을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대외적인 봉사와 캠페인에 집중함과 동시에 동아리 멤버 간 소통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꾸준한 동아리 활동은 회원들의 소속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MT 등 동아리 내부 행사도 확대하려 한다. 봉사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초아다솜의 이념처럼, 많은 사람들이 봉사의 가치를 알게 되도록 멤버들 간의 결속을 두텁게 다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롭게 초아다솜의 문을 두드릴 신규 회원의 봉사 욕구를 충족시키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동아리가 되고자 한다.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색다른 활동들을 기획해 봉사의 저변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시작점이다. 아무쪼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태워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초아다솜과 함께하길 기대한다.

edit — 주문수 photo — 이덕재

청춘, 열정으로 무르익다

인천대학교 축제, 대동제 조명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대학 축제 '대동제'가 열렸다. 나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콘텐츠들로 구성됐다. 요일별 다른 메뉴를 선보인 푸드트럭 ZONE, 학생들의 인생샷을 위한 포토 ZONE, 재밌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체험 ZONE, 여기에 역대급 라인업으로 펼쳐진 무대공연은 우리 청춘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을 선물했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과 기쁨의 환호성 가득했던 그날을 이곳에 조명해 본다.

5월 28 ~ 31일 간 열린 대동제로 인해, 우리대학은 청춘들의 열정과 기쁨으로 무르익었답니다.

축제는 역시, 청춘과 열정. 그러므로, 꼬치 역시 청춘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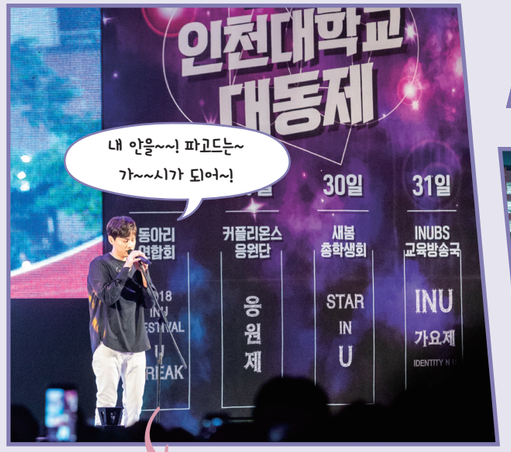
다양한 체험부스는 축제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런 멋진곳에서 인생샷 한컷!?

외국인 학생들도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열렸답니다.

'STAR IN U'를 통해 끼와 재능을 선보인 우리대학 학생들의 공연은 축제에 흥을 더했습니다.

선미 등장에, 그날 밤 모든 남학생들은 잠못이뤘다.



여학생들은 민경훈의 두성 창법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END

우리대학 청춘들의 열정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To be continued..

edit — 최진성 photo — 최준근

시민들과 울고 웃는 삶이 행복합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

최근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선출됐다. 우리대학 교육대학원 출신인 이용범 동문이 그 주인공. 발로 뛰는 의정 활동으로 많은 시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주고 있는 이용범 동문을 만나 그간의 정치 생활과 시의회 의장으로서의 각오를 들어봤다.

> 시의회는 오는 10월 일자리경제본부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각종 청년문제들을 전담케 할 겁니다.

edit — 이소영 photo — 이주용

시민들의 봉사자로 청렴하고 성실하게

우리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했던 이용범 동문이 지난 7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오르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마냥 좋을 법도 한데 시의장이라는 자리의 무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기쁨을 느낄 여력은 없는 듯했다. 시의원 37명과 300만 인천시민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큰 까닭이다. 하지만 이용범 동문은 타고난 열정가! 시의회를 이끌 계획들을 이미 성실하게 실천 중이었다.

"전반기인 향후 2년 동안 시의회를 끌고 가야 한다 생각하면 양어깨가 묵직해집니다. 특히 서른일곱 명의 시의원들 중에 3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래선지 시민들의 선택과 응원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명이 더욱 큽니다. '긴장감 갖고 열심히 하라' 라는 채찍질로 알고 시의원으로서, 또 시의장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시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까지 모두 갖는 기관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을 대표해서 인천시 행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간접참여 정치를 시행하고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최종결정하는 일도 도맡는다. 또한 시의 법령과도 같은 조례들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입법대의기관으로서도 기능하며 인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행정들을 올바르게 집행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즉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의 행정 참여부터 의사결정, 조례제정, 집행부에 대한 감시까지 하는 곳이라고. 지난 8년 동안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려 노력해온 그의 발자취가 새삼 이해되는 대목이다.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는 '현장중심의회'

실제 그는 의정활동을 하는 내내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인정과 복지관을 방문하는 일도 일상다반사라는데.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거우니까요. 제가 처음 정치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용범 동문은 인천광역시학원연합회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교육특보 일을 하며 시의원의 꿈을 키워갔다. 시에서는 이미 교육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던 그였지만 보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인천시를 위해 일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리하여 그는 2010년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 이후 7대~8대 3선 연속 시의원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7명 중에 현재, 3선 연속 시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이용범 동문이 유일하다 하니 그간의 노력을 짐작할 만하다.

"처음 시의원이 됐던 4년간 각종 민원들을 해결하며 '내가 이 일을 왜 이제 시작하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풀어드린 애로사항들을 통해 행복해하시는 시민들을 보니 말로는 다하기 어려운 보람과 희열이 느껴졌거든요. 천직이다 싶을 정도였죠(미소). 저는 민원에 경중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민원들이 다 소중하죠. 누군가에게는 소소할지 모를 애로점이 어떤 시민 한 분에게는 밤잠 설칠 걱정거리일 수도 있으니까요."이런 일념으로 일군 성과들은 실로 다양했다. 미세먼지 관련 지원책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조례들을 제정하였는가 하면 청소년을 위한 취미활동공간으로 지하철역마다 간이무대들을 만들기도 했다. 늦은 밤에 귀가하는 고등학생 딸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해 골목마다 가로등을 마련했고, 교통사고 잦은 구도심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최신형의 CCTV도 설치했다. "우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수도권 매립지 문제, 제3연륙교와 GTX·KTX 건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원도심의 재생사업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재8대 시의회는 끊임없이 연구함은 물론 공청회와 시민 대토론회,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회 차원에서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최선 다해 찾을 것입니다." 교육대학원 재학시절, 의정활동하면서도 출석률이 100%였을 만큼 학구열과 인천대에 대한 애정도가 깊었다는 그는 우리대학 학생들을 비롯,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도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시의회와 인천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인턴십'을 준비하고 있고 청년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의 꿈도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인천대가 파워엘리트란 프로그램으로 시의원들 직무능력 향상 및 의정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터라 시의회에서도 인천대와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인천대학 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정 아카데미라는 것을 실시하는 것도 그의 일환이죠. 이밖에도 시의회는 오는 10월 있을 조직개편에서 일자리경제본부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각종 청년문제들을 전담케 할 겁니다."정책이나 제도 등에 발이 묶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겠다고 다짐하는 이용범 시의장. 앞으로도 진정성과 세심함이 묻어나는 행보만을 남겨주길 응원하고 염원한다.

세계로 나아가는 국립 인천대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스스로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돕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양운근 교수의 지론이다. 지난 8월 9일, 전자공학과 양운근 교수는 안식년에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 상임이사직을 맡아 업무를 시작했다. 누구보다 인천대학교를 사랑하며 대학발전에 힘쓰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랑을 나눠 보람을 저축하다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상임이사 양운근 교수

2013년부터 인천대에 총 1억 1천만원 규모의 기부를 이어와, 외국인 유학생에게 1년 치 기숙사 실비를 지원하는 '양운근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양운근 교수의 기부 철학

양 교수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꿈꿔왔다. 특히 다른 지방 출신 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대학 공부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에 있었다. 때문에 그는 이런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부를 시작했다. 2016년, 모교인 서울대에 1억원 상당을 기부해 부친의 뜻을 기리는 '양재해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이는 양 교수의 고향 경북 왜관 출신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기금이었다. 또한 2013년부터 인천대에 총 1억 1천만원 규모의 기부를 이어와, 외국인 유학생에게 1년 치 기숙사 실비를 지원하는 '양운근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고향에서 한의원을 하며 환자를 돕던 부친께 영향을 받았다는 양 교수는 '미래에 느낄 보람에 대한 저축'이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사랑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인천대 발전기금의 오늘

양 교수가 상임이사로 취임한 인천대 발전기금은 현재 약 145억원의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도에는 총 380명의 인천대 재학생들에게 3억 6천만원이 넘는 장학금이 지급됐다. 특히 양 교수는 이 중에서도 발전기금 장학금의 홍보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이중 수혜가 가능하다. 즉, 다른 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수혜자는 등록금은 물론 부족한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기금 기부자 또한 일반적으로 장학금의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부금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이지 못할까 고민해 기부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발전기금 장학금은 장학증서 수여식에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부자와의 유대감을 높이고, 감사편지 교환 등의 피드백으로 인천대 발전기금 만의 장학금 문화를 만들어 모금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이 밖에도 인천대 발전기금은 학교 구성원은 물론 인천 시민들 등 총 100만 명 참여를 목표로 1만원 씩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만원 릴레이'와, 기부자의 이름을 장학기금으로 만드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부자의 나눔 의지를 고취시키는 '네이밍 캠페인' 등을 운영해 기부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함께 도와가는 내일

양 교수는 발전기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나눔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누구나 발전기금에 쉽게 접근해 기부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그의 취지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기부가 가능하게끔 발전기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계획이다. 이로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뉴스 등의 온라인 알림을 통해 기금 소식을 쉽게 전달하려 한다. 한편, 양 교수는 한시라도 빨리 발전기금 장학금 수혜자가 늘기를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인천시와 체결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 협약서' 내용에 따라 인천시가 조속히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발전기금 자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만원 릴레이, 네이밍 캠페인 등 기존 기부 캠페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대학 관계자 및 동문이 '스스로 돕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edit — 주문수 photo — 이덕재

INU NEWS

인하대-인천대 공동주최 송도인천 2030 세미나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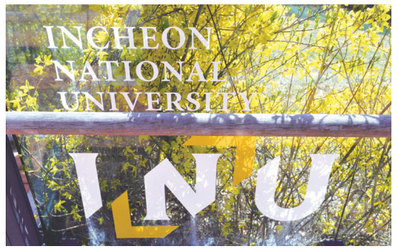
인하대와 인천대는 6월 7일 『송도인천 2030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정치적 환경이 급변하는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인하대와 인천대가 송도의 지역 개발과 산업 혁신, 바이오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인하대와 인천대 두 대학이 지역사회와 상생적 발전 방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고민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개최했다. 이현우 인하대 총장 직무대행과 조동성 인천대 총장은 "앞으로 양 대학이 협력하고, 바이오, 물류, 통일후 통합 등 더 많은 교류를 하고, 두 대학의 상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발전적인 인천지역의 되자"고 말했다

'2018 인문도시 공모사업' 선정 쾌거

우리대학 인문도시사업단(사업책임자: 박진한 교수)은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8 인문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 6월까지 3년 간 4억7천92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인문도시사업단은 동대학 일본문화연구소,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와 함께 인천시립박물관 도시역사관,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 등이 참여해, '인문도시 인천: 산업화 100년의 역사에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찾다(이하 산업유산 인문학)'라는 주제로 인문도시사업을 기획했다. 우리대학은 산업유산 인문학에 대해 "우리 지역의 산업유산에 관한 인문강좌, 인문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함께 조사하고 공유하며 적절한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사업책임자인 박진한 교수(일어일문학과)는 "이번 인문도시 사업을 통해 개항 이후 산업화 100년의 역동적인 역사와 다층적인 기억을 담고 있는 인천의 산업유산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원화하고 지역재생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자율개선 대학 선정

교육부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정원감축 없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대상에 포함되고 대학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 대학 기본역량 평가 1단계에 전국의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 중 64% 수준인 207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결정했다. 1단계 진단은 최근 3년간 대학의 실적 자료를 활용해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인 교육 여건과 대학운영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과 관련된 정량 지표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단하는 정성 지표에 기반 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2018년 8월 학위수여식

2018년 8월 학위수여식이 17일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박사 26명, 석사 174명, 학사 1,512명 등 총 1,712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우리대학 출신인 가수 이선희가 특강를 하였고, 동문선배로서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이번 2018학년도 8월 학위수여식은 안병배 인천광역시의회 제2부의장, 김강래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광오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 김현기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이사,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김은환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김용민 인천대 교수회장, 졸업생 및 가족, 초정인사, 교직원, 재학생 등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동문 출신인 가수 이선희가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 동문상을 수상하였다.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 동문상은 인천대 동문 또는 교직원으로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우리대학 발전에 큰 공로가 인정된 분께 수여하는 상으로 2018년 3월 5일 김교흥 전 국회사무총장(현 대한체육회 부회장), 이헌구 대학원동문연합회장, 자연과학대 기초과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사업팀이 수상하였다.

양성구 교수 공동 연구팀, 전자피부 기반 뇌 질환 진단 및 치료 장비 개발

생명공학부 나노바이오전공 양성구 교수팀, 연세대학교 안종현 교수팀과 홍콩시티대학교 양성칠 교수팀은 전자피부 형태의 뇌질환 진단 및 치료 의료기기를 개발하였다. 기존 뇌질환 치료에 사용되었던 바늘형태의 전극은 뇌를 물리적, 생물학적 손상을 주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연구팀에서 개발한 전자피부는 뇌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시·공간의 뇌파를 측정함으로써 뇌 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같은 전자피부를 통해서 치료자극을 주입함으로써 다양한 뇌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 발견이다. 파킨슨병, 헌팅턴, 우울증, 정신분열, 이명, 환상통증과 같은 뇌 질환에 적용가능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저명 학술지인 스몰 (Small, impact factor=9.598) 저널에 "Epidural electrotherapy for epilepsy" 제목으로 표지 모델로 선정되어 게재되었다.

에너지화학공학과 김건우 학생 영국왕립화학회 JMC C 논문 표지 선정

에너지화학공학과 김건우 학생(제1저자)과 박영돈 교수(교신저자)가 함께 수행한 연구"Floating-non-solvent method for inducing the formation of highly crystalline conjugated polymer nanofibrils in the solution state for high-performance organic transistors"가 영국왕립화학회 권위지인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C (IF 5.976) 8월호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김건우 학생은 용매간의 용해도 계수를 조절하여 용액 상태에서 전도성 고분자가 높은 결정성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비용매 부유법(Floating-non-solvent)을 이용하여 고분자 소자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선희 동문, '인천대를 위한 인천대인 동문상' 수상

2018년 학위수여식에서 동문 출신인 가수 이선희가 인천대 동문 또는 교직원으로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우리대학 발전에 큰 공로가 인정된 분께 수여하는 상인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 동문상'을 수상하였으며, 특강과 동문 선배로서의 축사를 통해 2018년 8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인사를 남겼다. 가수 이선희의 2018년 8월 학위수여식 특강과 격려 인사,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 동문상 수상식 영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김웅 연변대 총장 '인천대를 위한 인천대인 동문상' 수상

김웅 연변대 총장이 지난 8월 29일 대학동문으로서 우리대학 발전에 큰 공로가 인정되어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 동문상'을 수상하였다. 김웅 총장은 중국내 대학전문가로서 연변대학을 중국내 21세기를 이끌 100개 대학을 이끌었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연변대학과 우리대학은 통일후 통합연구분야에서 활발하게 공동연구를 수행중이다.

제12회 하이드로아시아 개최

제12회 하이드로아시아는 아시아 유수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물 문제의 해결방안과 효과적인 물 관리 기술 및 지식을 서로 공유하기 위하여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12회째인 HydroAsia 2018에는 총 15개국, 13개교, 60여명의 수공학 분야 미래 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의견교환과 토론의 장이 되었다. 올해는 참가자를 6개 팀을 나누어 2개월 전부터 웹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한 공동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팀별 주제로는 수치해석 기법을 통한 수치해석과 홍수 저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다 심도 있고 현실감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워크숍 기간 동안에 인천교매립지, 유수지, 빗물펌프장 등을 방문하여 도시침수지역의 원인규명과 실제적이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워크숍으로 도출된 결과는 아시아의 크고 작은 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향후 아시아 수공학분야의 공동연구 및 아시아 협력체계 등을 추구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대학교, 중국 산둥알루미늄대학과 MOU 체결

국립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는 8월 6일(월) 중국 산둥알루미늄대학(총장 두슈위)과 학술교류, 국제교육프로그램, 한국어학당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산둥알루미늄대학은 중국 국영기업 CHINALCO의 전액 출자 회사인 Shandong Aluminium 그룹 산하의 학교로 우리대학과 MOU 체결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3박 4일의 일정으로 방한 중이다. 조동성 총장은 MOU 체결식에서"MOU 체결을 발판으로 중국 산둥알루미늄대학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위해시와의 협력도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산둥알루미늄대학 두슈위 총장은 양교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은 물론 중국 위해시와 한국 인천시의 연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화답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학동문 당선인 축하연 개최

우리대학은 지난 7월 8일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학동문 당선인 축하 행사'를 열고 당선인 대학뱃지 전달식과 총동문회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총동문회는 이날 대학 발전기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호 남동구청장, 김강래 인천광역시의원 등 총 30여 명의 당선인이 참석했다. 또 김광오 총동문회장과 대학 동문들과 조동성 총장, 박종태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동성 총장은"국립 인천대학교의 동문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품고 끈끈한 유대와 협력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인천대 동문은 모두 44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어학당 중국에 '제1호 분교' 현판식 개최

지난 15일 중국 위해에 소재한 산동알루미늄대학에 한국어학당 제1호 분교와 대련 동방외국어학원에 제2호 분교를 연이어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어 연수생 교육을 위한 분교설립에 나섰다. 그동안 국내 각 대학과 단체 등에서 해외 한국어학당 설립은 간헐적으로 꾸준히 있어 왔지만 분교 형태의 전문 한국어학당 설립은 우리대학이 최초라 할 수 있다. 한국어학당 분교는 유학을 준비 중인 해외의 많은 어학 연수생들에게는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도 한국어학당이 제공하는 수준 높은 교과과정과 학습시스템으로 자국에서도 한국어 실력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최적화된 제도로 모든 유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분교 현판식에 참석한 조동성 총장은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첫 번째 분교 현판식이 계속해서 제2호 제3호 등 금년 내 제10호가 개원될 것'이라고 밝히고, 현판식에 참석한 한국어 연수생들에게 '분교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교육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유학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기회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그 꿈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 발전기금 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독어독문학과 우미정 학생 등 137명에게 1억 3,200만 원이 전달됐다. 특히, 이날 수여식에는 기부자 네이밍 장학금을 기부한 조동성 총장, 컴퓨터공학부 성미영 교수, 유아교육과 오주은 교수,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강우철 교수도 참석해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기부자 네이밍 장학금은 인천대에서 최초로 시작한 기부자의 명의를 딴 장학금 수여 캠페인으로, 1만 2,000명 재학생 전체가 장학금 수혜자가 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체 교직원이 개인별 네이밍 장학금 갖기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동성 총장은 "발전기금 장학생들이 실력을 키워, 우리대학을 널리 알리고 국가와 세계를 위해 몫을 해내는 인재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전기금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어, 우수한 학생들이 자기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1억 원 기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에 대학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이광수 부사장, 경영혁신 김종서 본부장, 여객서비스 임남수 본부장, 운항서비스 백정선 본부장, 건설본부 신주영 본부장, 사회가치추진 최민아 실장, 사회공헌 이태영 팀장 및 인천대학교 총장, 동북아물류대학원장, 대외전략처장,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전기금 기탁식 및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이번 기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상생하여 발전하기 위함이며, 특히 인천대학교가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항경제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성 총장은 "인천대학교를 생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꾸준한 마음에 너무 감사드리며, 물류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인천대 경영대학원 MBA 35기 원우일동,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35기 원우 일동이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제35기 박창석 원우회장과 김기태 수석부회장 외 일동은 기탁식에서 인천대에 1천만 원 발전기금 약정서를 전달하였다. 박창석 제35기 원우회장은 "경영대학원 MBA 35기 원우 일동이 국립인천대학교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마음과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동성 총장은 "제35기 원우 일동이 모은 소중한 마음을 헤아려 대학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인천대 발전기금 1억 2000만 원 기부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는 최근 인천대에 발전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기부했다.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억 9000만 원의 대학 발전기금 기부해오고 있다. 아울러 인천대 법인카드 및 직원복지카드 포인트를 인천대에 환원하는 제휴기금도 8,727만 6,000원을 기탁했다. 조동성 인천대 총장은 "NH농협은행의 소중한 기부에 감사를 전하며, 농협은행의 대학사랑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 확대 등 학생복지증진에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기부현황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농협은행(주) 인천시청지점	기업	120,000,000
이원다이애그노믹스	기업	50,000,000
(의료)이원의료재단	기업	20,000,000
김광오/총동문회	동문	20,000,000
김장성	동문	15,200,000
조동성	교원	10,369,800
(주)교보문고	기업	10,000,000
경영대학원 MBA35기	단체	10,000,000
씨엔에스헬스	기업	10,000,000
(주)에스피지	기업	9,000,000
(주)이원생명과학연구원	기업	5,000,000
드론스쿨(주)나즈윅스	기업	3,000,000
손기윤	교원	2,000,000
신명희/ 경영대학원 MBA 34기	동문	2,000,000
초록뱀미디어	기업	2,000,000
중국대학 한국어과교수(5차)	단체	1,900,000
정병태	개인	1,020,000
변윤식	교원	1,009,570
(주)몬스터유니온	기업	1,000,000
(주)태영건설	기업	1,000,000
삼목회	단체	1,000,000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2017 아이템사업화 최병조멘토팀 팀원 일동	단체	1,000,000
임경숙	개인	1,000,000
차순배	단체	1,000,000
배양섭	교원	600,000
조중휘	교원	466,180
박구웅	교원	400,000
이영애	교원	324,650
윤용식	직원	316,940
차기율	교원	316,200
곽문선	조교	313,280
이상동	직원	312,550
박종승	교원	311,930
박주문	교원	310,660
가온종합물류(주)-김상현	기업	310,000
이승민	동문	310,000
(주)울인원시스템	기업	300,000
(주)진성엔텍/ 이순득	기업	300,000
(주)한마/이정식	기업	300,000
강현철	교원	300,000
구경헌	교원	300,000
권영산	개인	300,000
김상현	동문	300,000
노창근	동문	300,00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미림전력/김유신	기업	300,000
양미혜	교원	300,000
양종현	교원	300,000
양하윤	개인	300,000
양하준	개인	300,000
유정희/(주)H에너지	기업	300,000
이군익	동문	300,000
이병관	동문	300,000
이성욱	동문	300,000
이은주	교원	300,000
이재성	동문	300,000
전성택	교원	300,000
정광훈/ 유카스에너지	기업	300,000
조형호	동문	300,000
추성호/인성환경	동문	300,000
한창원	동문	300,000
홍진배	교원	300,000
홍필기/ 서인천현대모터스 주식회사	기업	300,000
황기섭	동문	300,000
황민식/ 해천이엔씨	기업	300,000
황현배	동문	300,000
한상혁	직원	276,990
오복자/ 국제광고(전무홍)	동문	270,000
김영보	단체	200,000
드림오피스 (세연인포)/김승태	기업	200,000
윤영호	단체	200,000
이종열	교원	200,000
한윤순	단체	200,000
유기숙	단체	190,000
설경자	직원	165,940
박지선	교원	165,870
이숭열	직원	160,730
임정훈	교원	156,760
김관호	교원	150,000
김교홍	동문	150,000
김숙진	동문	150,000
김승환	직원	150,000
김홍근	동문	150,000
소대수	동문	150,000
심광흠	동문	150,000
유정흔	동문	150,000
유학봉(조성면)	동문	150,000
윤용	동문	150,000
이상연	동문	150,000
이종헌	동문	150,000
임승빈	직원	150,000
임찬옥	직원	150,00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제희태	동문	150,000
조주환	동문	150,000
황용	동문	150,000
박은경	교원	108,710
우인성	교원	101,460
장인우	교원	100,150
김용수	개인	100,000
김재민	단체	100,000
김환식	직원	100,000
노영돈	교원	100,000
서한익	단체	100,000
이창연	교원	100,000
최성민	단체	100,000
안춘순	교원	94,690
고민정(조교)	조교	90,000
김규만	동문	90,000
김정곤	교원	90,000
김태성	교원	90,000
박진우	교원	90,000
신철호	동문	90,000
오귀영	단체	90,000
윤덕영	동문	90,000
윤선인	교원	90,000
윤영돈	교원	90,000
이준호	직원	84,290
구태환	교원	75,000
박근수	교원	75,000
임일진	교원	75,000
하병훈	교원	75,000
김경아	조교	63,250
권오중	교원	60,000
최명종	직원	60,000
김형기	직원	56,010
김기만	직원	52,950
장현주	직원	50,380
김연철	단체	50,000
민나영	개인	50,000
유재형	단체	50,000
이명희	단체	50,000
정하윤	단체	50,000
최무근	단체	50,000
최재혁	직원	49,670
고덕봉	직원	45,540
이진희	직원	44,330
한종민	직원	42,560
홍현경	조교	42,370
허성희	직원	40,820
이성훈	단체	40,000
김윤신	교원	38,520
장소영	직원	34,100
김강우	교원	33,74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백종숙	직원	33,040
이향숙	교원	32,150
김정기	직원	30,800
김규원	교원	30,000
김재철	동문	30,000
김지용	교원	30,000
김지훈	동문	30,000
김치용	동문	30,000
김혜진	단체	30,000
나희영	단체	30,000
문종욱	동문	30,000
문준영	교원	30,000
박민범	교원	30,000
박영돈	교원	30,000
박정연	직원	30,000
박정희	동문	30,000
배가람	동문	30,000
변정수	단체	30,000
서진엔지니어링(주)/ 박규봉	기업	30,000
승일자동차공업/ 김영목	기업	30,000
신천수	직원	30,000
안동찬	직원	30,000
유병순	동문	30,000
윤병선	동문	30,000
이문학	교원	30,000
이병기	동문	30,000
이상봉	동문	30,000
이성호	동문	30,000
이애영	직원	30,000
이양현	조교	30,000
이종훈	동문	30,000
이푸름	단체	30,000
임태은	교원	30,000
주정수	단체	30,000
최민경	조교	30,000
한상길	조교	30,000
허광현	학부모	30,000
배순희	직원	29,500
유종근	교원	29,390
전지혜	교원	29,170
신광섭	교원	29,160
신은기	교원	28,390
김정민	직원	28,230
조천순	직원	27,860
양운근	교원	27,750
오지은	조교	27,640
이병학	직원	27,110
김수현	조교	26,940
황명환	교원	26,43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이원종	교원	26,400
김혜미	교원	26,330
이도균	교원	26,310
김정업	조교	25,920
윤정아(학술정보과)	직원	25,620
김평원	교원	25,470
최원	교원	25,340
김광수(B)	직원	24,750
방재한	직원	24,310
임병미	직원	24,050
양해숙	직원	23,990
이나영	직원	23,880
주현태	교원	23,810
오은하	교원	23,800
송상화	교원	23,680
정선영	교원	23,500
김동호	직원	23,460
최윤희	직원	23,400
김영철	직원	23,300
김재광	교원	23,250
전석희	교원	23,140
최윤정	직원	23,030
김종호	직원	22,990
김진한	교원	22,950
강하라	교원	22,820
정보람	조교	22,620
이병관(조교)	조교	22,230
민금홍	직원	22,070
신용권	교원	22,040
김성희	교원	21,820
최성을	교원	21,820
이은직	조교	21,690
김동욱	교원	21,660
이승철	직원	21,650
안영효	교원	21,620
이원준	교원	21,550
박정훈	교원	21,540
김복영	교원	21,520
민문기	직원	21,470
정승미	직원	21,060
황영삼	교원	20,960
김응철	교원	20,790
박미선	직원	20,730
윤지영	조교	20,630
김관식	직원	20,610
신원태	교원	20,470
홍기용	교원	20,340
이건상	교원	20,210
나인강	교원	20,170
김환용	교원	20,160
김광수(A)	직원	20,11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박종돈	교원	20,080
김선경	직원	20,050
고경아	개인	20,000
김덕기	동문	20,000
김홍규	단체	20,000
김효정	개인	20,000
박종석	직원	20,000
이수영	단체	20,000
강효현	직원	19,980
황미옥	교원	19,930
민철기	교원	19,740
우금순	직원	19,710
정영식	교원	19,600
홍현숙	직원	19,580
황병희	교원	19,430
이병하	교원	19,370
김승규	교원	19,330
김찬주	교원	19,230
정해준	교원	19,160
문옥미	직원	19,030
박재윤	교원	18,930
경명진	직원	18,790
정영민	직원	18,780
김선희	교원	18,730
박승준	교원	18,630
황선용	직원	18,470
김진호	교원	18,460
최은미	교원	18,450
김선호	교원	18,440
이원경	교원	18,260
여기태	교원	18,210
김순옥	직원	18,160
최계운	교원	18,140
황태진	직원	18,140
박문주	교원	18,070
최재웅	직원	17,860
우제대	직원	17,830
박찬진	교원	17,760
강연제	직원	17,720
박재일	직원	17,630
김창우	직원	17,620
문은호	직원	17,190
이윤정	조교	17,160
임지현	직원	17,130
조사옥	교원	17,080
이영수	교원	16,800
김정아	직원	16,770
전동근	교원	16,740
박성완	교원	16,670
최형우	직원	16,470
이진원	교원	16,34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이민철	교원	16,190
박지훈	교원	16,160
방동인	직원	16,150
안순길	교원	16,130
이운형	교원	16,060
정경란	직원	16,040
전용재	직원	15,910
송다영	교원	15,810
오원선	교원	15,750
최영미	조교	15,700
홍영진	직원	15,450
송원용	교원	15,380
유재은	조교	15,310
손정숙	직원	15,260
곽준경	조교	15,080
윤희랑	동문	15,000
우요섭	교원	14,920
권오미	직원	14,660
이창연(조교)	조교	14,610
김재곤	교원	14,550
여운호	교원	14,510
권정호	교원	14,460
양승모	조교	14,460
강상혁	교원	14,290
강치후	조교	14,260
이희관	교원	14,090
김형근	직원	14,080
이석기	직원	14,040
이연희	직원	14,040
이윤	교원	14,010
이선영	조교	13,870
최일용	직원	13,800
김동규	직원	13,690
김산정	직원	13,670
신현주	조교	13,590
권정희	직원	13,480
김태완	교원	13,420
김동배	교원	13,400
공용득	직원	13,370
김우일	교원	13,360
고은희	직원	13,350
황미숙	조교	13,260
김은영	교원	13,170
김익수	교원	13,110
박상임	직원	13,100
박용호	교원	13,050
전병준	직원	12,990
전동진	조교	12,980
심인애	직원	12,940
권혁준	교원	12,920
김영희	교원	12,84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김은선	직원	12,830
황상순	교원	12,830
노지승	교원	12,720
박시우	직원	12,610
이영석	교원	12,470
송현호	교원	12,460
강현욱	교원	12,390
홍수민	직원	12,350
정연서/신한카드포인트	조교	12,290
김장균	교원	12,010
한양호	직원	12,000
이창길	교원	11,700
심민석	교원	11,580
정경찬	직원	11,540
신미옥	직원	11,520
최인수	직원	11,480
안효진	교원	11,420
이진섭	직원	11,390
김순홍	교원	11,340
김기준	교원	11,260
장서은	직원	11,200
권기영	교원	11,080
조현우	교원	11,070
박주연	직원	11,060
강상미	직원	11,040
이종혁	직원	10,990
한상정	교원	10,910
박정준	교원	10,770
이충우	직원	10,700
김성연	교원	10,690
김현우	직원	10,650
서종국	교원	10,570
박정승	직원	10,420
전재철	직원	10,380
임경환	교원	10,210
윤종구	직원	10,160
조길수/이남영, 조규현	직원	10,150
홍선표	교원	10,090
유재란	직원	10,070
(주)대림시스템/이헌구	기업	10,000
(주)미래서비스 이승연	동문	10,000
(주)백석개발/김영수	기업	10,000
(주)인하ENT 박창석	기업	10,000
16기이현	단체	10,000
GOYALAMIT	단체	10,000
RASHIMIPRA	단체	10,000
SHASHANKP	단체	10,000
강년주	교원	10,00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강대규	단체	10,000
강은아	단체	10,000
공성식	동문	10,000
공성신	동문	10,000
권경옥	개인	10,000
김가현	직원	10,000
김건	동문	10,000
김경숙	개인	10,000
김광석	동문	10,000
김규헌	동문	10,000
김두수	개인	10,000
김명지	단체	10,000
김민아	개인	10,000
김민하	개인	10,000
김상민	직원	10,000
김승겸	동문	10,000
김연수	직원	10,000
김영재	개인	10,000
김용택	동문	10,000
김용희	동문	10,000
김원일	개인	10,000
김윤희	단체	10,000
김이슬	개인	10,000
김인성	단체	10,000
김주성	동문	10,000
김지선	단체	10,000
김지호	단체	10,000
김진영	동문	10,000
김창일	동문	10,000
김태희	동문	10,000
김혁진	동문	10,000
김형준	개인	10,000
김훈	교원	10,000
나지혜	단체	10,000
남기원	동문	10,000
남대근	단체	10,000
맹중호	동문	10,000
박명갑	동문	10,000
박범혁	개인	10,000
박병주	개인	10,000
박보람	단체	10,000
박예린	직원	10,000
박용주	동문	10,000
박은나	개인	10,000
박재삼	교원	10,000
박주용	동문	10,000
박찬규	단체	10,000
박희나	개인	10,000
변상원	교원	10,000
서리라	단체	10,000
서보원	개인	10,00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석윤지	단체	10,000
성모나눔 마취통증의학과/오하영	기업	10,000
성수현	단체	10,000
손보익	개인	10,000
손서현	단체	10,000
손수완	개인	10,000
손양훈	교원	10,000
손예영	개인	10,000
송세호	개인	10,000
송영진	동문	10,000
송인석	동문	10,000
송준영	교원	10,000
신수혜	개인	10,000
신승희	직원	10,000
신요섭	개인	10,000
심미숙	개인	10,000
안문숙	개인	10,000
안상면	동문	10,000
안중걸	개인	10,000
안지영	단체	10,000
양범규	개인	10,000
양세희	단체	10,000
양진모	단체	10,000
양철용	동문	10,000
여창섭	동문	10,000
염종혁	단체	10,000
오종대	동문	10,000
우인정	직원	10,000
유성호	개인	10,000
유지선	동문	10,000
유한철	동문	10,000
유혜연	개인	10,000
유호준	개인	10,000
윤경숙	동문	10,000
윤경훈	개인	10,000
윤기석	동문	10,000
윤선영	단체	10,000
윤선희	개인	10,000
윤차현	개인	10,000
윤효훈	직원	10,000
이경열	단체	10,000
이경주	개인	10,000
이규민	개인	10,000
이규선	개인	10,000
이규호	동문	10,000
이기찬	단체	10,000
이미경	단체	10,000
이성종	단체	10,000
이성형	개인	10,000
이우채	개인	10,00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이유진	개인	10,000
이재억	개인	10,000
이정연(임소영)	개인	10,000
이지윤	개인	10,000
이창훈	개인	10,000
이철휘	개인	10,000
이태영	단체	10,000
이현아	단체	10,000
임헌정	동문	10,000
임희수	개인	10,000
장성준	동문	10,000
장세진	단체	10,000
전민경	개인	10,000
전호준	단체	10,000
정다운만원릴레이	단체	10,000
정민선	단체	10,000
정복만	직원	10,000
정영근	개인	10,000
정유석	개인	10,000
정유진	단체	10,000
정재숙	개인	10,000
정재용	교원	10,000
정필현	동문	10,000
조영민	동문	10,000
진성훈	교원	10,000
최경환	단체	10,000
최낙종	동문	10,000
최선희	단체	10,000
최세희	단체	10,000
최소영	단체	10,000
최수완	개인	10,000
최연제	단체	10,000
최욱	교원	10,000
최종우	개인	10,000
추혜원	단체	10,000
하대남	동문	10,000
한용식	동문	10,000
한준희	동문	10,000
허재연	개인	10,000
허찬욱	개인	10,000
홍성일	동문	10,000
홍성희	동문	10,000
홍수빈	개인	10,000
황상진	동문	10,000
황성온	교원	10,000
황은정	학부모	10,000
황인준	개인	10,000
황정렬	개인	10,000
서정현	교원	9,910
최병길	교원	9,860

후원자명	구분	총합계
김광열	직원	9,830
윤춘화	직원	9,790
안호선	교원	9,710
김준석	교원	9,670
빈상찬	직원	9,600
최성찬	직원	9,540
이시자	교원	9,350
강승택	교원	9,300
심형보	교원	9,250
박형의	직원	8,900
오혜영	조교	8,900
이지영	조교	8,840
이황주	직원	8,700
이동후	교원	8,680
윤태웅	교원	8,570
장진주	직원	8,560
김수진	교원	8,530
최성욱	교원	8,480
김영주	직원	8,410
천성철	교원	8,280
유은정	조교	7,820
안정규	교원	7,780
박희재	직원	7,760
장희경	직원	7,730
조명순	직원	7,720
조재인	교원	6,930
조봉래	교원	6,910
김학만	교원	6,800
조혜영	교원	6,460
한승헌	직원	6,230
유혜배	교원	6,210
정종태	교원	6,100
채숙희	교원	5,680
구선희	직원	5,580
이효은	조교	5,570
민홍기	교원	5,250
정옥경	교원	4,980
김용민	교원	4,780
나인수	교원	4,250
채진석	교원	4,080
이지은	교원	3,370
이찬식	교원	3,370
안승범	교원	2,970
김내현	교원	2,780
안익태	직원	2,700
이승매(LI CJENG MEI)	교원	2,280
유혜경	교원	790